

# 장수 국가의 역설...76세 이상 절반이 '상대적 빈곤'

### 2019년 상대적 빈곤율 16.3% 기록해

### 소폭 개선됐으나 66세 이상은 43.4%

### '노인 빈곤율'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

### 노인 고용률 높고...근로 시간 긴데도

요즘 정부의 화두 중 하나는 '국민 삶의 질 개선'이다. 지난 2019년 세계에서 7번째로 30-50 클럽(1인당 국민 소득 3만 달러, 인구 5000만 명 이상)에 가입하는 데 성공해 양적 성장은 이뤘으나, 질적 수준도 높아보자는 의미이다. 통계청이 '국민 삶의 질 보고서'를 2014년부터 내놓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최근 공개된 2020년 국민 삶의 질 보고서에서는 업데이트된 지표 63개 중 40개가 개선됐다. '여가 시간' '일자리 만족도' '안전에 관한 전반적 인식' '학교생활 만족도' '1인당 주거 면적' 등 여가, 고용·임금, 안전, 교육, 주거

부분에서 여러 지표가 나아졌지만, 여전히 좋지 않은 지표가 있다. 바로 '상대적 빈곤율'이다.

전체 인구 중 '가처분 중위 소득 50% 이하'인 인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상대적 빈곤율은 대표적 소득 불평등 지표로 꼽힌다. 전체 인구의 소득 계층 간 격차를 나타내는 '지니 계수'와 함께 널리 쓰인다. 우리 사회에서 저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율, 즉 사회의 빈곤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로써 국민 삶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19년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16.3%를 기록했다. 전년(16.7%) 대비

0.4%포인트(p) 낮아졌다. 이 지표는 2011년 18.6%→2012년 18.3%→2013년 18.4%→2014년 18.2%→2015년 17.5%→2016년 17.6%→2017년 17.3%로 소수점 아래 한 자릿수에서 소폭 감소하는 등 매우 느린 속도로 개선되고 있다.

이는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높은 수준이다. OECD 회원국 간 비교가 가능한 2018년 기준으로 보면 헝가리(17.9%)·미국(17.8%)·라트비아(17.5%)·이스라엘(16.9%)에 이어 5번째로 높다. 네덜란드(8.3%)의 2배에 이른다.

연령별로 보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2019년 기준 76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55.6%로 전년(55.1%) 대비 0.5%p 악화했다.

76세 이상 노인의 절반 이상이 빈곤을 겪고 있는 셈이다. 66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43.4%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전체 인구 상대적 빈곤율이 한국보다 높은 라트비아(39.0%)보다 나쁘다.

OECD 회원국 중 기대 수명이 높아 한국이 '장수 국가'로 꼽히는 점을 보면 이는 역설적 상황이라 아닐 수 없다.

2018년 기준 한국의 기대 수명은 82.7세로 OECD 평균(80.7세)보다 2.0세 높고, 일본(84.2세), 스위스(83.8세), 스페인(83.5세), 이탈리아(83.4세), 아이슬란드·이스라엘(82.9세), 호주·프랑스·노르웨이(82.8세)의 뒤를 이어 높은 축에 속한다.

2018년 한국의 기대 수명은 2000년(76.0세) 대비 6.7세 늘어나 같은 기간 OECD 평균치(76.7→80.7세) 대비 2.7세 더 많이 늘어났다. 상대적 빈곤율 지표가 큰 폭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고, 특히 노년층 빈곤율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임을 고려하면 한국의 기대 수명 증가를 마냥 축복할 수만은 없는 상황인 것이다.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고용률은 32.9%(2019년 기준)로 OECD 회원국 중 아이슬란드(34.8%)에 이어 2번째로 높고, 60세 이상 인구의 월 근로 시간은 140.9시간으로 29세 이하 인구(145.3시간) 수준에 육박한다. 많은 노인이 오랜 시간 일하고 있는데도 상대적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의 노인 자살률이 유독 높은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작년 12월 인천시 부평구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열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 모금에 일자리를 구하는 많은 노인분들이 몰려 줄을 서고 있다.

다. 2019년 70세 이상 남성의 10만명당 자살률은 90.5명으로 40~49세 남성(44.5명)의 2배를 상회한다. 같은 해 70세 이상 여성의 자살률도 28.0명으로 40~49세 여성(17.1명) 대비 10.9명 높다. 60~69세 남성·여성 자살률도 54.2명·14.0명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의 고령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는 분석이다. 정부는 "고령화 등 사회 문제의 해법을 내놓겠다"며 '인구 정책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시니어 창업 지원, 고령자 적합 직무 개발 등을 논의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사적 연구 지원 강화, 공적 연구 효율화, 노동 시장 유연화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선옥기자



### 스마트 현금결제 서비스 출시한 KT

KT가 중소기업의 비대면 후원금 납부 기능을 제공하는 '060스마트현금결제'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모델들이 060현금결제서비스로 중소기업 후원금을 비대면으로 납부하고 문자메시지로 결과를 확인하는 모습.

## “코로나19 팬데믹 악용한 전세계 사이버 위협 ↑”

### 원격 근무 활성화...사물인터넷 장치 대상 공격 증가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악용한 사이버 공격이 증가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전례없는 사이버 위협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4일 포티넷코리아의 보안연구소 포티가드랩이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글로벌 위협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사이버 공격자들은 원격 근무자들이나 원격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삼고, 디지털 공급망 및 핵심 네트워크를 목표로 하는 공격 시도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2020년 하반기는 상반기에 비해 전체 랜섬웨어 활동이 7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서비스형 랜섬웨어(Ransomware-as-a-Service, RaaS)가 진화하고 공격자들이 공격 대상에 대한 대규모 랜섬(몸값)을 추구한 것이 그 원인으로 분석했다.

공격자의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탈취한 데이터를 공개하겠다는 위협 속에 랜섬웨어의 활동이 크게 증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감지된 가장 활동적인 랜섬웨어 변종은 Egregor, Ryuk, Conti, Thanos, Ragnar, WastedLocker, Phobos/EKING, BazarLoader였다. 랜섬웨어

공격의 대상이 된 분야에는 의료, 전문 서비스 기업, 소비자 서비스 기업, 공공 조직 및 금융 서비스 기업 등이 있다.

보고서는 "진화하는 랜섬웨어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안전한 오프사이트에 데이터가 적시에 완벽하게 백업되는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로-트러스트 액세스 및 망 분리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격자들은 사용자의 온라인 활동을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널리 확산된 멀웨어의 범주를 조사한 결과 주요 공격 대상은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플랫폼으로, 대부분의 직원들이 일방적인 업무 시간에 사용하는 문서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웹 브라우저도 지속적인 공격 대상이다. 이 HTML 범주에는 멀웨어가 많은 피싱 사이트와 코드를 삽입하거나 사용자를 악성 사이트로 리디렉션(링크강제변경)하는 스크립트가 포함됐다.

이러한 유형의 위협은 글로벌한 핫 이슈가 있거나 온라인 상거래가 활발

히 이뤄지는 시기에 증가했다.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회사 네트워크에서 브라우저를 사용할 때는 웹 필터링 서비스의 이점을 누릴 수 있으나, 보호 필드 없는 외부에서 사용 시에는 더 많은 위협에 노출된다.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원격 근무가 많아지면서 집과 사무실 간의 경계가 모호해졌다.

이로 인해 공격자들은 집 네트워크를 통한 기업 네트워크 접근이 더 수월해졌다. 2020년 하반기에는 사물인터넷(IoT) 장치를 대상으로 하는 익스플로잇 위협 목록의 상단을 차지했다.

보고서는 "각 IoT 장치는 모든 장치에서 보안 모니터링 및 조치가 필요하며, 반드시 보호받아야 하는 새로운 네트워크 '넷지'가 됐다"고 전했다.

특히 APT(지능형 지속 위협, Advanced Persistent Threat) 그룹은 다양한 방식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을 지속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일반적인 공격은 개인 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하는데 초점을 둔 공격, 지적 재산 탈취, APT 그룹의 국가 우선순위에 따른 인텔리전스 도난 등이다.

최이슬기자

## 카카오 “우버·타다 돈 내고 콜 받으라”

### 카카오모빌리티, 경쟁 택시가맹사에 제휴 제안

### 수수료 내고 카카오 일반 호출 받는 방식 제시



카카오 택시가 경쟁사들에게 호출을 받으려면 수수료를 내라고 통보했다. 호출 택시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확보한 카카오가 최근 경쟁사들이 늘어나자 무료로 제공하는 호출권을 중단할 예정이고, 견제구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모빌리티업계에 따르면 카카오T 운영사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VCNC(타다),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우버), KST모빌리티(마카롱 택시), 코나투스(반반택시 그린) 등 국내 가맹택시 주요 사업자에게 카

카오T에서 주는 일반 호출을 받으려면 제휴를 맺고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통보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타가맹사업자에 소속된 가맹회원이 카카오모빌리티가 무료로 제공하는 카카오 T 플랫폼을 병행 사용함으로써 승객불편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타가맹사업자들에게 소속 가맹회원이 자체 플랫폼 외에 카카오 T 플랫폼 병행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휴방식을 통해 이용하도록 제안했다”고 밝혔

다. 2015년 카카오택시로 출발한 카카오택시는 국내 택시호출시장에서 80% 가까운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쟁사들이 진입을 갖춰가며 본격 도전에 나서자 견제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세계적인 차량공유 플랫폼사인 우버와 SK텔레콤의 자회사인 티맵 모빌리티의 합작회사 '우티(UT)'는 내달 1일 출범해 올 상반기 서비스 출시를 공식 시작할 계획이다

대리운전·렌터카·택시 등 올인원 모빌리티 서비스뿐만 아니라 '플라잉카(하늘을 나는 차)' 등 미래차 시장까지 공략한다는 목표다.

렌터카 기반의 주력 사업인 '타다 베이직'을 접는 쏘카는 대리운전과 가맹택시 사업뿐만 아니라 중고차 판매사업까지 나서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체 모빌리티 서비스를 확장하는 것은 물론 지난달 글로벌 투자사 칼라일그룹으로부터 2억 달러(약 22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며 경쟁사 반격에 맞설 실탄을 확보, 수성에 나선 모습이다.

김민정기자

## 거리두기 2주 연장...외식업계 “피해는 누가 보상하나”

### 정부, 코로나 확진자 8주 연속 300~400명대 유지돼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결정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현행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고 5인 이상 집합금지, 영업시간 10시 제한 방안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자 외식업계의 불만이 들끓고 있다.

지난해 연말부터 이어져온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이 완화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연장되면서 자영업자들의 누적 매출 타격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는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2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하고 5인 이상 모임 금지 방안도 유지키로 했다.

정 총리는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수도권에서 3차 유행이 시작됐고 그 확산세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대목”이라며 “수도권 중심으로 특단의



방역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는 방역조치를 강화한다”며 “앞으로 2주간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실태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정부 방침이 알려지면 매장 영업은 중심으로 장사를 해왔던 자영업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이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외면한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기동취재본부